

SK그룹, 뉴라이프재단 설립

SK그룹은 6월21일 서울 서린동 사옥에서 법무부와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<행복한 뉴라이프 재단> 설립 협약식을 했다.

7월 공식 출범하는 재단은 8월 경기도에 커피전문점을 열어 여성 출소자를 채용하고, 10-12월에는 전국 3곳에 세탁공장을 세워 출소자들을 고용할 예정이다.

재단은 사업장을 통해 매년 30명 안팎의 출소자를 고용해 2015년까지 143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다.

SK는 재단 투자 및 운영비 12억원을 전액 출연하고, 법무부는 사업장 무상임대 및 마케팅 지원 등을 맡는다.

협약식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충호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, 정만원 SK 부회장, 윤진원 SK 윤리경영부문장 등이 참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21>